

깊이 마음쓰신 문제

한해중에서 제일 무더운 삼복철이었던 2014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다가 대리석타일직장 소성로의 중간단에 이르시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직장내부를 둘러보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실내온도가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런 곳에서 로동자들이 계속 일하면 건강이 나빠질수 있다고 근심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로동자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나서 타일포장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고, 벨트콘베아를 타고나오는 타일들을 포장하는것은 얼마든지 자동화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모든것을 고려하여 로동자들이 훌륭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설비들을 보강할 때 고열, 소음 등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